

삼성 이재용 경영 복귀할까...지역 경제계 촉각

오늘 가석방 여부 결정... ‘국내의 위기 타파’ 오너 복귀 학수고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결정이 9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이 수감생활을 끝내고 경영에 복귀할 수 있을 지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대규모 투자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 복귀를 원하는 분위기다.

8일 지역경제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 일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진행한다.

여기에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으며,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일요일

인 광복절에 앞서 오는 13일께 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결정을 앞두고 삼성전자의 가전 사업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광주·전남 300여 협력 업체를 비롯해 지역경제계도 기대를 건 모습이다.

지역경제계는 그동안 미중 패권다툼 등 반도체 위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사면요청을 이어왔다.

지역 대표 경제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전남경영자총협회 등 지역 경제단체들은 지난 4월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대구상공회의소와 동시에 사면 서명행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경제계 및 경제단체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광주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가전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있다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광주사업장의 정규직 직원만 3000여명으로, 1차 협력사는 50여곳이다. 이밖에 2차, 3차 협력사를 비롯해 지역 내 관련업체만 300여곳으로 추정되는 등 삼성전자가 미치는 지역경제 파급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가장 먼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시장에서 우려하는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부문에서도 미국의 마

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각각 176단 낸드와 DDR5D램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등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속에 미국 등의 투자 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또 국내외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유망 기업 인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경제계는 내다보고 있다.

광주경제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인수합병이나 투자 등은 오너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며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해도 경영활동이 온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석방보다 사면에 대한 지역경제계의 요구도 크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초기 스타트업 2000여곳에
청년창업자금 2100억 지원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2000여개의 스타트업에 청년창업자금 2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중진공은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담보력이나 신용등급, 재무상태보다는 창업 아이템과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제조기업과 지역주력사업 영역 기업은 최대 2억원, 그 외는 1억원으로 연 2.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청년창업자창업자금은 당초 1600억원 규모였지만,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100억원으로 늘어났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은 지난 6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ESG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왼쪽부터 이성욱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 송중욱 은행장. <광주은행 제공>

광주 수출 기업 “하반기 체감경기 호전될 듯”

광주상의, 117곳 조사

35.9% 답해... ‘악화’ 31.6%

리스크 1위는 ‘원자재값 상승’

광주지역 수출업체들의 하반기 체감경기가 전년도 실적 부진에 따른 저저효과로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 하반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리스크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17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21 하반기 수출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체감경기가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실적이 크게 악화됐

던 지난해에 비해 세계경기 부진이 일부 개선됐고, 주요국 중심의 백신 접종률 확대와 소비·투자심리 개선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진 게 원인으로 분석되나.

하지만 수출전망이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률 역시 31.6%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부진 장기화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및 수급 차질, 물류·운송비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 하반기 지역 수출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대내·외 리스크(복수응답) 역시 ‘원재료 가격 상승’이 6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51.3%), ‘물류비용 상승’(44.4%), ‘인건비 상승’(35.9%), ‘수출국의 경기 부진’(31.6%), ‘환율 변

동성 확대’(17.9%) 등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업체들은 ‘기존 거래처 관리 강화’(50.4%·복수응답)와 ‘비용절감’(47.0%)을 통해 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 바라는 주요 정책지원과제(복수응답)에 대해서는 ‘환율 및 원자재가 안정’이 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대내외 경기회복 움직임에 따라 코로나19로 악화됐던 지역 수출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국제적 감염증 확산세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원자재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 리스크가 상존해 있어 수출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한노총 광주본부 포용금융 협약

광주은행은 최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산하 지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송중욱 광주은행장과 이성욱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금융 및 자산컨설팅 등 금융교육과 개인별 3000만원 이내의 자금지원 등을 한다.

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자립을 위한 자산컨설팅 등 금융교육과 2금융권 및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한 대출 등 신용관리

서비스(CMS)를 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ESG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에 주력하고자 지난 4월 ESG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ESG 경영 돌입과 함께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전문 협의체인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자산 컨설팅과 신용접수 향상, 적기 금융지원 등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노동자들의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과의 상생, 지역민과의 동행은 기반으로 한 광주은행의 ESG 포용금융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조달청, 원자재 가격난 중기 지원 다각화

광주지방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광주조달청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승에 따른 계약 단가 인상 신청을 접수, 이를 검토·반영해 곧바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연장된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조치’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모든 경쟁 입찰에 대해서는 가급적 긴급입찰을

허용하기로 하고 선금·하도급 대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단축해 지급한다.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납품이행이 지체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제, 지체상금 부과, 계약보증금 몰수 등 각종 제재적 조치를 면제하거나 납품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김공진 청장은 “코로나19 확산과 지역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라며 “공공조달이 광주·전남 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로또복권 (제975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8	9	17	22	24	5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440,410,375		9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60,010,092		61	
3	5개 숫자일치		1,294,419		2,828	
4	4개 숫자일치		50,000		135,604	
5	3개 숫자일치		5,000		2,212,347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